

출판계 움직임

李文公, 출판의 책임 강조

李雄熙문공부장관은 이른바 理念圖書 출판에 있어 외국에서 이미 평가가 끝나버린 급진좌경 저작물의 무비판적인 출판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10월12일 '책의 날' 선포식에서 치사를 통해, 출판행정상의 제약이나 불편이 해소되고 출판의 자유와 자율이 보장될 때 그 자유를 합당하게 누릴 만큼 스스로의 책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또 '책의 날' 제정을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축하의 뜻을 말하고, 출판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 향상, 출판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출판계의 당면과제로 지적했다.

고려대장경 학술세미나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회(회주 법전스님)는 출판계가 고려대장경 완간일을 '책의 날'로 제정한 것을 기념해 '고려대장경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10월11일 오후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가졌다.

한편 동 연구회는 12~13일 양일간 고려대장경이 강화도에서 해인사까지 옮겨진 경로를 답사하는 '고려대장경 移運의 길을 찾아서'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6~8면)

水原圖書館에 '도서관 문화상'

대한도서관연구회(회장 嚴大燮)가 제정한 제2회 '澗松도서관문화상' 수상단체로 水原圖書館(관장 李先植)이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10월29일 하오4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베풀어진다.

수원도서관은 84년2월부터 관외대출을 실시하고 모든 자료 9만천 40권을 완전개개제로 운영해오고 있다. 1회에 5책까지 2주간 대출할 수 있는 관외대출제도를 마련, 회원



10월 12일 '책의 날' 선포식에서 致辭를 하는 李雄熙 문공부장관(오른편은 林仁圭 출협회장).

'책의 날' 선포식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林仁圭)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출판의 날' 선포식을 10월12일 오전 10시반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관련기사 4면)

李雄熙문공부장관을 비롯, 출판계·언론계·교육계·문화계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포식은 金鍾洪 출협상무이사의 '책의 날' 제정 경과보고

에 이어 林仁圭회장의 기념사, 權炳壹회장의 '책의 날을 받드는 글' 낭독, 李雄熙장관의 치사, 출협 제정 '4대 독서상' 시상, 金泰吉 서울대교수의 기념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林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책과 거리를 두고 일상에만 묻혀 사는 이들에게 책을 가까이하

게 하기 위해" 출협의 창립40돌을 계기로 '책의 날'을 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林회장은 "우리 모두가 책의 소중함과 책의 힘을 믿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데에 '책의 날'의 참뜻이 있다"고 말하고, 이날을 계기로 출판인들이 좋은 책을 만드는 일과 독자들이 손쉽게 책을 구독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그동안 이용자수가 4만9천563명, 이용도서수는 11만5천164권에 이른다.

또한 86년부터 구입도서목록을 공개하여 이용자와의 친밀감·신뢰감을 증대시켜 왔으며, 구입희망도서 신청을 받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구입하는데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착도서코너」를 따로 설치, 이용자들이 신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활동이 앞서가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본보기로 인정된 것.

이번 제2회 심사위원은 李鳳順(위원장), 金炳翼(문학평론가), 李璟薰(출판인), 李春熙(도서관학), 李鴻球(도서관)씨 등이 맡았다.

圖書流通協, 교도소 등에 책 보내

한국도서유통협의회(회장 허창성)는 지난 9월28일 순천교도소에 재소자들을 위한 교화교육용 교양도서 및 기술전문서적 2000부를 기증했다. 이보다 앞서 9월5일에는 광주교도소에 1000부를 기증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78년 광복노인

회에 15,381부의 도서를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고아원, 낙도 어린이, 군부대, 교도소 등에 교양도서와 아동도서를 보냈는데, 그동안 32개소에 72,287부를 기증했다. 이중 교도소에는 육군교도소, 서울 소년원 등 전국 23개 교도소에 45,000여권을 보냈다.

제3회 국제출판 학술세미나

한국출판학회(회장 安春根)는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외국 저작물 이용의 실제」를 주제로 한 제3회 국제출판 학술세미나를 오는 24일(토) 오후2시 크리스찬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날 주제발표는 일본측에서 미야다 노부루씨(일본 유니에이전시 대표)가 「일본에 있어서의 해외저작권의 변천과 대응」을, 한국측에서 李重漢씨(서울신문 논설위원)가 「저작권 중개업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맡는다. 사회는 韓勝憲변호사.

능률영어사 주소 이전

능률영어사(대표 이찬승)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251-1 근 신빌딩으로 옮겼다. 전화는 701-4756~7

書店 심벌마크 부착키로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회장 李秉仁)는 '88서울올림픽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점의 심벌마크를 제작 각 서점에 부착키로 했다.

태성기획(대표 전덕수)에 의해 제작되는 심벌마크는 현대감각에 맞는 그래픽으로 서점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연합회는 10월중 우선 1차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 서점에 심벌마크를 부착케 할 계획이다.

출판전문인 해외연수자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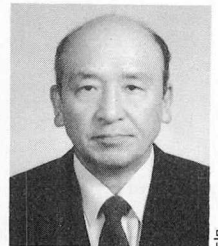
출협은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의 출판전문인 해외연수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연수대상자 선발 신청을 10월23일까지 접수한다.

선발위원회는 미주·유럽·일본지역 각 1명씩 3명이며, 연수기간은 2~3개월, 선발기준은 출판사에서 3년 이상 편집·기획업무에 종사한 현직근무자로서 연수대상국 언어를 해득할 수 있는 자이다. 선발된 연수자에게는 항공료와 체재비·수강료 등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李謙魯·文鍾誠씨에 문화훈장



이겸로 사장



문종성 사장

정부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通文館 李謙魯사장에게 은관문화훈장을, 國民書館 文鍾誠사장에게 육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安涇玉회장 4남 결혼

博英社 安涇玉회장의 4남 鍾一군이 지난 10일 오후4시 교동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부는 元鍾洪씨의 차녀 惠淵양.

金洛駿사장 장녀 華燭

金星출판사와 金星교과서(주) 金洛駿사장의 장녀 順年양이 10월22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코엑스)에서 薛溶載씨의 장남 泰元군과 화촉을 밝힌다.

'지도자연수' 연수생 추천

출협은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진숙희)의 추천의뢰에 따라 동 개발원의 '지도자연수'과정 연수 희망자를 10월2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연수는 '문화활동지도과정'으로 연수기간은 11월4~5일(1박2일), 인원은 30명이며, 각 출판사의 편집책임자급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소는 한국청소년연맹 연수원(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연수자의 숙식과 교재 일체는 여성개발원이 부담한다.

출판인산악회 山行 220회 돌파

한국출판인산악회(회장 허창성)는 지난 10월3일로 산행 220회를 돌파했다.

지난 82년11월 발족한 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산행을 실시해온 이 산악회의 현재 회원은 60명. 이 산악회는 그동안 100회 산행을 기념한 산악우표·등반사진 전시회, 산악도서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출판관련업체에서 열리는 등산대회에 참가, 지도·심판을 맡아왔다.